

서동축제 전야제 14일 개최

무왕행차 퍼레이드 · 무왕제례 · 힐링콘서트 등 다채

익산서동축제 전야제가 익산 도심에서 '무왕행차 퍼레이드'로 열린다

시는 2023 익산 서동축제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시민이 화합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개막식 전날인 오는 14일 중앙동과 익산역에서 전야제를 개최한다.



서동축제장인 금마 서동공원에서 익산역까지 확장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우선 무왕행차 퍼레이드와 과거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꽃 피운 백제 30대 무왕의 행차 재현, 무왕행차 행렬단 뿐만 아니라 자매도시인 경주시신당, 익산시 29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시민 퍼레이드단'까지 참여하며 도심거리가 백제 축제분위기로 물든다. 퍼레이드 구간은 중앙동 기업은행에서 익산역까지 약 400m 구간이며, 퍼레이드 주요 구간마다 여러 시민단체와 봉사대가 참여해 교통 편의와 안전을 책임진다. 퍼레이드가 끝나면 익산역 동측 광장에서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무왕제례'가 진행된다. 무왕제례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6년 개최한 마한제례가 효시이며, 2005년부터 무왕제례로 이름을 바꾸어 진행되는 역사가 깊은 제례이다. 무왕제례가 끝나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축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힐링콘서트가 펼쳐진다. 콘서트는 일상에 작은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전야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시 관계자는 "익산 서동축제 전야제를 통해 익산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동축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서동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16일 오후 3시 익산 미륵사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도 진행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5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 잇자'

군산시,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군산시는 5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양성평등주간(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이번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라는 슬로건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자는 의미로 개최됐다. 은파아너니 합창단의 식전공연과 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이 진행됐으며 시장 표창은 단체 △교회를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군산분회, 개인, △김선옥

한중여성교류협회 군산지회장, △나정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회장, △윤복남 회원, △김양희 수송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수상 군산시의회의장, 국회의원 표창도 함께 수여됐다. 2부에서는 김희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이 '성평등 세상으로 또다시 점프!!'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성장하는 양성평등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한중여성교류협회 군산지회장, △나정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군산지회장, △윤복남 회원, △김양희 수송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수상 군산시의회의장, 국회의원 표창도 함께 수여됐다. 2부에서는 김희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이 '성평등 세상으로 또다시 점프!!'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성장하는 양성평등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결위 심의 돌입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5일부터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집행부가 요구한 1조7,859억6,200만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한 88억9,500만원을 삭감하고 1조7,770억6,7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영변경안을 시민들의 행복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고 나서 첫 번째 개최된 심의로 9명의 의원 모두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다"며 "예결위원들과 각 부서의 예산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제2회 추경예산과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8일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거쳐 7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지역 소식통

군산시, 추석기간 섬 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 지원

군산시는 9월 한달 간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 이용 시 육지에 비해 택배비가 현저히 높게 책정되는 상황으로, 최대 5,000원의 추가운임을 지불하는 등 비용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오는 30일까지 택배 이용에 따른 택배 1건당 최대지원금은 5,000원이며, 1인당 지원한도액은 5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옥도면 개야도, 연도 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어청도 등 관내 9개 섬 지역의 주소지를 갖고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운임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옥도면 사무소에 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추가운임 지불 증빙자료 제출해 접수 가능하다. 운임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이후 지급예상자를 확정해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청년공무원들 시정 아이디어 개발

청년세대 익산시 공무원들이 혁신기획을 제시하며 익산 발전의 일등공신 역할을 북돋고 있다.

'제7기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은 5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정책기획단원, 전문가 심사위원단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2030세대 공무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멘토인 4050세대 공무원과 함께 전체회의, 분과회의, 전문가 컨설팅, 사전발표회 등을 거쳐 다양한 정책으로 탄생했다.

'그린배너 지원', '도e로움 건강 버스 지원', '다이로움 탐방을 임대주택', '서용요 모티프 웹소설 공모전 개최', '익산과 함께, 그린(Green) 캠핑 축제 등 완성도 있는 신규 정책들이 쏟아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체력인증센터 운영... 시민건강 '청신호'

기초 스트레칭, 서킷트레이닝,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다이어트 등

익산시가 체력인증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팔봉 종합운동장 내 익산체력인증센터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 증진 교실 운영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체력 증진 교실은 기초 스트레칭과 서킷트레이닝,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타바타 운동 등 체중감량과 근력·체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진

행된다. 대상은 만 19~64세 시민이며 비만자, 저 체력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한 달간 운영한 1기 체력 증진 교실에는 24명이 참여해 비만자는 체중 감소를 저 체력자는 한 단계 도약한 건강한 체력을 길렀다.

1기 교실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한 달간 즐겁게 운동했고 사람들과 신나는 음악과 함께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이니 체력이 좋아짐을 느꼈다"며,

"수업 마지막날 진행한 체력측정을 통해 인증서도 획득하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시는 1기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어 곧바로 2기 체력 증진 교실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1기에 이어 2기 도 조기마감 되어 지난 4일부터 한 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조상호 체육진흥과장은 "익산체력인증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체력 증진 교실 참여로 건강한 신체와 자신감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조남석 익산시의원 발의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은(한영·황등·합라·용포·성당·망성·용안·용동)이 발의한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의 도모를 위해 제

정됐다. 조남석 의원은 지난 6월 제251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대해 비와 비 이외의 작물에 대한 차등 지원을 지적하고 같은 비율로 최대한의 보험료를 지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비와 비 이외의 작물을 동일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비로 100분의 2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올해 5월과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용안·용동·망성 일대 농작물 및 하우스시설이 침수 피

해를 입어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심의에 잠긴 농업인들에게 보험료를 최대한 지원해 개인 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특히 시설작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감으로써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익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현재 국가에서 순보험료의 80%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추가로 버는 10%, 비 이외의 작물은 5%를 지원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